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작 품 소 개 서

구 분	내 용
이야기 소재 (Motive)	유령이란 소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인간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존재에 끌려 관객들은 늘 극장을 찾는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유령들, 유령을 볼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인공이 함께 일하며 겪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은 따뜻한 가족애와 진실한 마음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스토리 구성 (Plot)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동원. 기일에 찾은 사고현장에서 수상한 열쇠 하나를 줍는다. 열쇠의 인도를 받아 낯선 동네의 어느 레스토랑 앞에 도착한 동원. 그는 그곳에 사는 유령들의 계약으로 밤 12시 이후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이런 동원 앞에 나타난 보험회사 직원 혜미. 그녀는 미지불된 동원 부모님의 사망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그에게 접근한다. 한편,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유령인 줄도 모르고, 고스트 레스토랑을 둘러싼 흥흥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는 동원. 그러나 그는 이 일로 이제껏 자신이 일했던 곳이 유령들의 레스토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방장 정구는 그에게 더 이상 레스토랑에 찾아오지 말 것을 종용한다. 하지만 고스트 레스토랑이 팔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동원.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그는 동분서주하지만 레스토랑을 구하려던 데 쓸 돈을 결국 사기당하고 만다. 동원의 돈을 들고 도망가려는 혜미. 그녀는 사기 친 돈을 아픈 동생의 수술비로 모두 쓰게 되고, 병원에 나타난 동원은 혜미의 사정을 듣게 된다. 모자란 수술비에 오히려 자신의 돈을 보태는 동원. 대신 그는 혜미의 도움을 받아 지상을 떠나야만 하는 유령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한다. 유령들이 그리워하던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동원과 혜미.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의 노력으로 유령들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모두 모인다. 눈으로 확인할 순 없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유령과 사람들. 유령들은 편안히 고스트 레스토랑을 떠나고 동원은 자신의 책을 출판하게 된다.
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	<p><b>동원(28)</b> 어리벉벉한 소설가 지망생. 자신은 모르지만, 유령을 보는 능력이 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p> <p><b>혜미(32)</b> 보험회사 직원. 보험금을 타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동원에게 접근해 사기를 치려한다. 아픈 동생이 있다.</p> <p><b>화정(61)</b> 2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 레스토랑을 처분하기 위해 잠시 귀국한다.</p> <p><b>정구(51)</b> 고스트 레스토랑의 주방장. 무뚝뚝하고 말이 없다.</p> <p><b>미래(18)</b> 레스토랑 웨이트리스. 새침데기. 피아노 연주가 특기.</p> <p><b>재경(35)</b> 레스토랑 카운터 직원. 스도쿠를 좋아하는 전직 회계사.</p> <p><b>수호(5)</b> 레스토랑 주방 보조. 명랑한 성격의 분위기 메이커.</p> <p><b>해피</b> 레스토랑에서 키우는 골든리트리버.</p> <p><b>사신</b> 정장차림에 늘 담배를 물고 있다. 유령을 저승으로 인도한다.</p> <p><b>사장</b> 순진한 동원을 부러먹는 출판사 악덕사장.</p> <p>기타 동등.</p>

## GHOST RESTAURANT 고스트 레스토랑

「 누군가 우릴 기억하기에, 우린 존재한다 」

모두가 잠든 시각. 저 멀리, 마천루들이 보이는 구시가지의 후미진 골목. 간판도 걸리지 않은 어느 레스토랑이 환하게 불을 밝힌다. 창틈으로 흘러나오는 냄새를 맡고 모여든 도둑고양이들. 뽀얗게 김이 서린 창 너머로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와인빛 벽지, 가지런히 정돈된 여남은 대의 테이블 보인다. 가게 한켠에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와 꼬마전구를 두른 아담한 크리스마스트리 서있다. 달그락 달그락. 잘 닦인 스푼과 포크, 나이프를 세팅하는 종업원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프와 옛날식 돈가스가 쟁반에 들려 나온다. 그 사이, 푹푹 문 두드리며 소리가 들리면 단정하게 앞치마를 두른 종업원이 나무로 만들어진 고풍스런 문을 살며시 연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는 밤 12시 이후에 오픈 합니다.’

타이틀 업 ‘고스트 레스토랑’

덜커덩. 영세한 출판사의 문을 열고 나오던 남자.

남자 : 미숙 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직원 : (한숨) 네, 교정 본 거 3시까지 인쇄소에 넘기실 거고, 내일 부모님 기일이라 휴가를 내셨고 그러니 양해해 달라 이 말씀이죠?

남자 : (웃으며 어깨를 으쓱한다. 문 밖으로 걸음을 옮긴다.)

여직원 : 참, 동원 씨! 그 책 선물하지 마세요. (잠시) 파세요.

쭈서 넣은 책들로 불룩한 서류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남자. 보풀이 일어난 목도리를 두른 순한 인상의 동원(28세). 그는 자신이 쓴 소설을 들고 찾은 작은 출판사에서 벌써 몇 년째, 다른 소설가들의 글만 교정 보고 있다. 어수룩하고 순진하다 못해 둔하기까지 한 동원. 책을 내주겠다는 사장의 말만 믿고 외판일까지 도맡는다. 착한 천성 탓에 늘 손해만 보는 동원.

인쇄소로 향하던 그날 오후, 동원은 도로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할머니를 발견한다. 달리는 차들에 아랑곳없이 차길로 뛰어드는 동원. 썩썩 달리는 차들 사이

에서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는 그때, 도로 저편에서 검은 정장차림의 남자가 그들을 향해 달려온다. 그 남자를 보고 줄행랑치는 할머니. 홀로 남은 동원을 향해 사납게 클랙슨이 울린다. ‘야, 이 새끼야! 죽고 싶어 환장했냐? 아까부터 혼자 뭘 썩소야!’ 흠어진 책들을 허겁지겁 챙겨드는 동원. 둔감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 채지 못했지만, 동원에게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죽은 사람, 유령을 보는 것이다.

이차선 도로가 구불구불 이어진 고갯길. 꽃다발을 든 동원이 보기에다 아슬아슬한 벼랑 근처에 서있다. 20년 전, 관광버스를 타고 고개를 넘던 동원의 부모님은 이곳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앞서 다녀간 유족들이 놓아둔 꽃다발 위에 꽃을 내려놓던 동원. 꽃무더기 사이에서 고풍스럽고 오래 되어 보이는 열쇠 하나를 발견한다. 열쇠를 주워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동원.

멀리서 이를 지켜보는 한 여자. 선글라스를 벗으면 나이보다 앓돼 보이는 얼굴이 드러난다. OO해상의 직원이자 교통사고 유가족들의 보험금을 등쳐먹는 사기꾼, 두 얼굴을 가진 그녀의 이름은 **헤미(32세)**. 회사에서 폐기직전의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는, 20년 전의 교통사고 당시 유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보험금 타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유가족들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헤미.

갑작스레 내린 첫눈 때문에 차 시간보다 늦게 터미널에 도착한 동원. 농친 줄 알았던 버스는 기사 아저씨의 배탈로 출발이 지연됐고, 그 덕에 동원은 다 놓칠 뻔한 버스를 겨우 타게 된다. 하루 동안의 여정으로 지쳐있던 동원. 그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깊은 잠에 빠지고 꿈속에서 부모님을 만난다. ‘외로운 너에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라며 부모님이 건네는 상자를 받아드는 동원. 뚜껑을 여는 순간, 몸이 흔들려 상자를 떨어뜨린다.

급정거한 버스. 놀라 잠에서 깬 동원은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주워든다. 창문 너머 펼쳐지는 낮선 풍경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동원. 분명 제대로 적혀 있던 행선지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헐레벌떡 차에서 내리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버스는 떠나버리고 동원은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구시가지로 헤맨다.

야심한 시각. 어두운 골목을 걷던 동원은 모퉁이에서 튀어나온 고양이에게 놀라 쫓고 있던 열쇠를 떨어뜨린다. 보란 듯이 열쇠를 입에 물고 도망치는 고양이. 한참동안 고양이를 쫓던 그는 환하게 불이 켜진 어느 레스토랑 앞에 도착한다. 고양이는 물고 있던 열쇠를 떨어뜨린 후 유유히 사라지고, 레스토랑에서는 동원의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온다. 홀린 듯, 가게 문의 손잡이를 돌리는 동원. 하지만 문은 잠겨있고 동원은 열쇠를 주워 구멍에 꽂아본다. 달각. 거짓말처럼 열리는 레스토랑의 문. 따스한 조명 아래 개점 준비로 분주하던 종업원들, 문 앞에 선 동원을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

땡- 땡- 땡-. 12시를 알리는 꽤종시계. 그와 동시에 가게에 발을 들이는 동원.

동원 : (머리 굽적이며) 영업 끝난 거 아니죠?

남 종업원 : (시계를 쳐다보고) 아니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셨죠? (잠시) 손님은... 혹시 사람?

수줍게 열쇠를 들어 보이는 동원의 주위를 빙 둘러싸는 가게 사람들. 열심히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그를 못 믿겠다는 듯 이것저것 캐묻는 새침한 여 종업원, **미래(18세)**와 뭐가 좋은지 싱글거리며 물을 따라주는 온화한 인상의 카운터 직원, **재경(35세)**, 작은 앞치마를 두른 채 동원을 신기한 듯 올려다보는 꼬마, **수호(5세, ♂)**와 그 아래서 반가운 듯 꼬리치는 골든리트리버, **해피**. 그리고 한 발짝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무뚝뚝한 표정의 주방장, **정구(51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는 레스토랑 식구들.

정구 : 어쨌든 잃어버린 걸 찾아줬으니 음식을 대접하는 게 도리지.

테이블 위, 정성스럽게 차려지는 스프와 돈가스. 손님이라곤 없는 텅 빈 레스토랑 안, 맛있게 음식을 먹는 동원을 관찰(?)하는 가게 사람들. 이들의 수상한 눈초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동원은 깨끗하게 접시를 비운다.

오랜만에 맛본 훌륭한 식사에 감탄해 칭찬을 늘어놓는 동원. 그는 계산대 앞에 서고 나서야 돈이 부족하단 것을 알고 당황해한다.

재경 :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돈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동원 : 죄송해서 이걸 어찌지... (잠시) 그럼 이 책이라도 드릴게요.

꾸벅 인사하고 가게를 나서는 동원. 그가 놓고 간 책을 돌려 보는 레스토랑 사람들. 잠시 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 가게에 들어온 '발 없는' 중년 손님, 스프르 테이블에 앉는다. 분주히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 아니, 유령들. 둔감한 동원은 이번에도 눈치 채지 못했지만, 이곳은 바로 유령들이 경영하는 '**고스트 레스토랑**'이다.

교정사와 책 외판원을 겸하는 동원의 일상은 언제나처럼 순탄치 않다. 담당 소설가에겐 덤벙댄다며 편잔을 듣고, 책을 팔러가서는 도리어 반품을 강요당하는 동원. 변화가 한복판을 걷다 생방송 쇼프로의 카메라에 걸려 유명 무당에게 억지로 신 내림을 받는 등 갖은 수난이 반복되지만, 늦은 밤 키보드와 씨름하며 동원은 자신의 소설을 써나간다.

완성된 소설의 초고를 들고 찾은 사장실. 동원은 소재 빈곤, 임팩트 부족 등을 이

유로 이번에도 책을 출판하기는 어렵겠다는 말을 듣는다. 무엇보다 이런 책을 돈 주고 사볼 사람이 없다는 사장. 울먹이던 동원은 어울리지 않게 조퇴를 신청하고 정처 없이 전철에 몸을 싣는다.

초겨울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텅 빈 전철 안에서 자신의 소설을 읽는 동원. 뻔한 스토리에 하품 나는 전개, 생동감 없는 인물 성격. 한 장 한 장 프린트를 넘겨보던 그는 어느새 깜빡 잠이 들고 만다. 그러는 사이, 동원을 실은 전철은 고스트 레스토랑이 있는 구시가지로 향한다.

퇴락한 구시가지의 플랫폼. 골목을 헤매던 동원은 익숙한 느낌을 좇아 발걸음을 옮기던 중, 우연처럼 다시 한 번 고스트 레스토랑에 도착한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상가들은 하나 둘 문을 닫는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레스토랑이 오픈하기를 기다리는 동원. 그런 동원을 보고 수군거리며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 이상하다는 듯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는 그의 곁에 한 아이가 다가와 말한다.

**아이 :** 아저씨 안 무서워요? 거기 귀신 나오는 집이에요.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는 아이.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불이 켜지는 레스토랑.

“하하. 사람들도 참~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구.”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한 마디 하는 동원. 표정 싸해지는 고스트들.

동원은 지난번처럼 돈가스와 스프를 맛있게 먹는다. 기회를 엿보던 미래, 꼬마 유령 수호를 동원에게 떠민다. 동원이 놓고 간 책에 대해 수호가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면, 기다렸다는 듯 동원의 주위로 모여드는 유령들. 동원은 유령들의 허무맹랑한 질문에도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해준다. 20년 간 ‘인간 손님’이라곤 받아본 적 없는 고스트 레스토랑에 묘한 흥분이 감도는 가운데, 동원의 얼굴에도 전에 없이 웃음꽃이 핀다. 레스토랑에서 유령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오래전에 느껴왔던 가족적인 분위기를 다시 느끼는 동원. 주방장 정구는 이를 못마땅하게 지켜본다.

기분 좋게 카운터 앞에 서는 동원. 전에 먹은 돈가스 값까지 지불하겠다고 지갑을 찾지만, 주머니 속에 있어야 할 지갑이 사라지고 없다. 동시에 표정이 굳는 고스트들. 180도 반전된 분위기 속에서 동원은 어쩔 줄 몰라 한다.

**재경 :** (엄숙한 목소리로) 세상엔 보이지 않는 균형이 있죠. 돈가스가 사라지면 그곳엔 다른 무엇이 생기는 법입니다. 보통 그건 돈이죠. 당신은 전에 대신 책을 지불했습니다. 돈가스가 사라지고, 책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뭘 대가로 지불하시겠습니까?

동원 : 책은 이제 없는데….

수호 : (바닥에 책을 내동댕이치며) 이 책 이제 재미없어!

미래 : 상습범 같은데, 몸으로라도 때우셔야겠네요.

재경 : (헛기침을 하고) 오늘부터 당신을 우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생으로 채용합니다. 근면성실은 기본이지만, 우리 가게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보다 첫째, 반드시 밤 12시 이후에 출근하고 해 뜨기 전에 퇴근할 것. 둘째, 누구에게도 가게 이야기는 하지 말 것. 셋째, 절대로 가게 문을 열어두지 말 것. 이상.

줄지에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된 동원. 자업자득이라 생각하고 꼼짝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동원이 가게를 떠난 후, 환호성을 지르는 세 유령들. 트리 뒤에서 숨겨두었던 지갑을 물고 나오는 해피.

정구 : 너희들 도대체 무슨 생각인거야? 산 사람을 이 레스토랑에 들이다니!

당황한 세 유령은 요즘 들어 점점 흐려지는 정구를 걱정해 이 일을 꾸렸다고 말한다. 유령이란, 미련을 버리지 못해 현세에 남겨진 죽은 자들을 일컫는 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누군가를 잊지 못해서 그들은 현세를 떠돈다. 이곳 고스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그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면 유령은 현세에서 차츰 그 존재가 희미해진다.

각각의 안타까운 사정으로 떠돌이 유령이 되었던 미래, 재경 그리고 수호. 사신과의 계약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정구는 갈 곳 없이 떠돌던 그들을 레스토랑의 식구로 받아준다. 저승으로 떠나는 유령들에게 이승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제공하는 고스트 레스토랑. 인간 세상에는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고스트 레스토랑과 함께 지금까지 지상에 머물 수 있었던 네 유령.

있다고 믿으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세상에서 사라진다. 최근 들어 부쩍 기운이 없고 생기를 잃어가는 정구.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정구가 사라지고 있다. 이를 걱정한 세 유령은 사신과의 약속까지 어겨가며 자기들을 볼 수 있는 동원을 레스토랑에 끌어들이고 그가 정구를 기억해주기 바랬던 것이다.

정구 : 헛된 것 하지 마. 벌써 20년이야. 이제 잊혀 질 때도 됐지...

사람들로 혼잡한 인천국제공항 내 커피숍. 선글라스를 낀 헤미와 어느 중년 여인이 마주앉아있다. 그녀, 헤미에게 몇 장의 서류를 건넨다.

중년 여인 : 돌아가기 전에 가게는 처분할 생각이예요. 보험금은 그때까지 부탁드릴게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세상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쨌든 남편 일... 신경써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떠나고 난 뒤, 헤미는 그녀에게 받은 서류를 본다. 한 남자의 신상이 자세

히 기록되어 있다. 관광버스 사고 유가족의 리스트를 펼치는 헤미. 리스트 하단, 동원의 이름만 남아있다. 출판사다 레스토랑이다 밤으로 낮으로 동분서주하는 동원을 좀처럼 만나지 못하는 헤미. 그간 파악해 둔 동원의 루트를 점검하고 마지막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앞으로 한 달 후면 크리스마스. 하지만 동원이 일하기 시작한 고스트 레스토랑은 마냥 한가하기만 하다. 가게 정리, 서빙, 화장실 청소 등 고된 업무를 내심 걱정하던 동원이 하는 일이라곤 가게 한켠에 있는 트리 옆에 서서 모두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뿐. 레스토랑 안에는 거울도 없고 핸드폰이며 일체의 전자기기도 작동되지 않지만, 둔감한 동원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많지 않은 손님들도 새로운 종업원 동원에게 관심 없기는 마찬가지다. 습관처럼 돈가스와 스프를 시켜놓고 종업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다 해 뜨기 전 가게를 떠날 뿐이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떠난 테이블엔 음식이 늘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 동원은 미래에게 그 이유를 묻지만 “이미 다 드신 거예요. 남은 건 밖에 있는 고양이들한테 좀 줄래요.” 라는 대답을 들을 뿐이다.

고양이들에게 남은 음식을 주던 어느 날, 동원은 어느 손님이 놓고 간 우산을 돌려주기 위해 그 뒤를 따라가게 된다. 그리고 동원이 도착한 곳은 어느 상갓집. 돌아가신 아버지의 우산을 들고 나타난 동원을 귀신들렸다고 쫓아내는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 상갓집을 나서는 동원은 가게 평판이 좋지 않은 탓이라 오해하지만, 동원의 뒤로 슬며시 보이는 영정사진 속엔 우산을 놔두고 갔던 레스토랑 손님의 얼굴이 보인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동원은 점점 레스토랑 유령들과 친해져 간다. 새침데기 미래는 하루 한 번 피아노 앞에 앉아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고, 전직 회계사였다는 재경은 숫자에 관한 거라면 무엇이든 척척박사, 신문이나 잡지에 난 고난도 스토리도 귀신(?)처럼 풀어낸다. 매일같이 해피와 함께 가게를 헤집고 다니는 장난꾸러기 수호는 동원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른다. 주방장 정구는 늘 여분이 남는 돈가스를 만들고 한술 가득 스프를 끓이지만 여전히 동원에게는 무뚝뚝하게 말을 걸지 않는다.

동원은 자신의 과거를 유령들에게 이야기한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며 홀로 남겨진 자신이 친척집을 전전했던 사실, 가슴을 따듯하게 만드는 소설을 쓰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고민 등. 듣고 있던 유령들 역시 그들의 사연을 하나 둘 동원에게 들려준다. 피아니스트를 지망하던 미래가 사랑하던 남자, 성공만을 바라고 살아오던 재경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던 고향친구, 수호가 폐를 쓸 때면 항상 막대사탕을 쥐어주며 달래던 엄마. 추억에 젖은 동원과 유령들을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정구.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령들은 이제 그들과 떨어져 만나지 못한다고 동원에게 말한다.



자신이 쓴 소설을 유령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카드 게임을 하며 매일 밤을 레스토랑에서 지새우는 동원. 종종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기도 한다. 그런 동원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주방장 정구. 그는 동원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때가 많다.

**FLASH BACK.** 20년 전의 관광버스 안.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사람들. 비탈길을 오르는 관광버스. 창밖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즐거워하는 등산복 차림의 동원 부모. 여자의 목에는 동원의 목걸이가 걸려있다. 그들의 옆 좌석에는 젊은 정구와 그의 아내가 앉아있다. 사이좋게 간식을 나눠 먹는 두 부부.

아슬아슬하게 비탈을 내려가던 관광버스, 급커브를 돌던 중 눈길에 미끄러진다.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암전.

사람과 유령 사이에 존재하는 규칙과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정구는 동원을 모른 채하지만, 동원이 처음 열쇠를 들고 레스토랑을 찾은 그날, 정구는 친구 부부가 자신에게 동원을 보낸 데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홀로 남은 아내를 떠올리게 만드는 동원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 게다가 정구는 자신이 유령으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다. 아내의 기억에서 점점 자신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휴일 아침, 동원의 옥탑방.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늦잠 자던 동원을 깨운다. 동원, 일어나 문을 열면 생글거리며 웃고 있는 헤미가 서있다. 막무가내로 동원의 집에 쳐들어간 그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동원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보험금을 타게 하려 한다. “동원 씨에 대해 조사 좀 했는데요. 그렇게 일하면 과로로 죽어 버린다구요! 이걸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선물이라 생각하세요.”

선물 이야기에 잠이 펴뜩 깨는 동원. 그녀의 제안이 솔깃하지만 자기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올 리 없다고 생각한다. “전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라고 말하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동원. 이를 부득부득 갈며 돌아서는 헤미.

사기꾼 헤미에게는 사실 아픈 남동생이 있다. 그녀가 받는 쥐꼬리만 한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는 족족 동생의 병원비로 나가버린다. 또래의 친구들이 당연하단 듯 즐기는 쇼핑도 여행도 연애도 그녀에게는 사치스러운 일일 뿐이다. 자신의 고달픈 인생이 지긋지긋하기만 한 헤미. 이번에 크게 한탕 하면 동생도, 자신의 과거도 모두 잊고 외국으로 도망가 살겠다고 결심한다. “나도 조금은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자신과 같이 불행한 처지에서도 해맑게 미소 짓는 동원을 헤미는 이해할 수 없다.

한편, 고스트 레스토랑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은 점점 무성해진다. 텅 비어있

는 줄 알고 레스토랑을 찾은 불륜커플에게 목격된 폴터가이스트 현상(요란한 소리와 함께 물건들이 스스로 공중 부양하거나 이리저리 움직이는 일)이며, 불 꺼진 가게 안을 매일 같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원을 지켜보는 동네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 같다. 가게 주인은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 연락이 안 되는 상황. 가뜩이나 동네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값이 형편없는 구시가지. 사람들은 고스트 레스토랑을 없애버리는 것이 이 동네가 살길이라고 의견을 모은다.

주민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단 것을 눈치 채는 유령들. 레스토랑의 침울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보겠다고 결심하는 동원. 그는 고스트 레스토랑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키지도 않은 선행을 동네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한다.

골목 청소는 물론,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 교통정리, 교회와 마을회관에 도서 기증, 삼류소설가들을 초대해 사인회를 열기도 하고 가게 메뉴를 들고 가정방문까지 불사하는 동원. 그러나 이로 인해 고스트 레스토랑에 대한 소문은 점점 사실화 된다. “저 총각 상태가 심각한데.” “어서 일을 서두르자구요.” 이런 상황을 눈치 채지 못하고 결정타를 날리는 동원. 유령들에게까지 비밀로 한 채 동네 주민들을 모일 모일 밤 12시에 가게로 초대한다. 출판사에서 몰래 만든 ‘푸짐한 식사제공’ 전단지까지 돌리는 동원.

결전의 날이 밝아온다, 아니 어두워진다. 모일 모일 밤 12시, 온 테이블에 돈가스 와 스프를 세팅하는 동원이 수상쩍기만 한 유령들.

잠시 후, 동네 주민들이 마녀사냥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손에 손에 연장을 든 채 우르르 가게로 몰려온다. 선두에 선 신부님과 작두를 휘두르며 나타난 동네 선녀보살(한 달 전, TV에서 동원에게 신내림을 강요한)이 “귀신아, 물렸거라!”를 외치며 레스토랑을 습격하려하자 놀란 유령들은 유령현상을 마음껏 보여주며 주민들을 내쫓는다. 오해를 풀기 위해 동원이 손 쓸 새도 없이 줄행랑치는 동네 주민들.

어질러진 가게 안. 부서진 창문과 쓰러진 테이블들. 유령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고스트 레스토랑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하는 동원에게 정구는, 다시는 가게에 오지 말라고 말한다.

같은 시각, 고스트 레스토랑 밖. 몰래 숨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헤미. 그녀의 손에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들려있다.

다음 날, 헤미는 출판사로 동원을 찾아간다. 동원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는 헤미. 그녀가 건넨 사진 속 고스트 레스토랑은 깨진 창문, 천장 가득 쳐진 거미줄, 낡고 못쓰게 된 테이블과 의자가 널브러져 있는 폐가의 모습이다. 컴컴한 가게 안, 허공에 대고 연신 허리 굽혀 절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동원.

**헤미 : 매일 밤 거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 탈 생각이 있거나 한 거예요!**

혼란에 빠진 동원은 고스트 레스토랑으로 달려간다.

레스토랑이 있던 골목. 동원은 사진 속에서 본, 단층의 폐가와 마주하게 된다. 빼 거덕거리는 계단을 밟고 올라선 동원. 다 떨어진 문을 밀고 들어선 가게 안, 테이블 아래 있던 고양이들이 동원을 향해 날카롭게 울고는 깨진 창 너머로 도망간다. 바로 어제까지 일했던 곳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

그때, 레스토랑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중년의 여인. “혹시, 부동산에서 오셨나요?” 헤미에게 서류를 건넸던 공항의 그녀, 정구의 아내 **화정(61세)**이다. 감회어린 시선으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가게를 둘러보는 화정.

동원은 그녀의 입을 통해, 정구가 20년 전의 관광버스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남편 정구와 함께 세상을 떠난 친구 부부의 이야기까지 하는 화정. 동원은 자신의 목걸이를 보여주고 자신이 그 부부의 아들임을 말한다. 깜짝 놀라는 화정. 동원은 그제야 정구는 물론 자신이 만난 레스토랑 사람들 모두가 유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가게를 팔 계획이라는 화정에게 동원은 얼마 전까지 자신이 정구의 유령과 함께 고스트 레스토랑에서 일했다고 주장한다. 유령들을 지키기 위해 레스토랑을 팔지 말아 달라고 하는 동원. 그러나 그의 말을 믿지 않는 화정. 그녀는 동원의 부탁을 거절한다. 가게를 팔고 남편을 잇기 위해 한국에 돌아온 그녀의 결심은 확고하다.

**동원 : 그렇다면... 제가 사겠어요! 이 레스토랑 제가 산다구요!**

**화정 :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때까지 돈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잠시) 크리스마스 날 난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때, 동원의 뇌리를 스치는 헤미의 얼굴.

보험회사 앞. 동원이 준비해 온 서류를 건네받는 헤미. 동원은 돈이 필요한 데가 생겼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쾌재를 부르는 헤미.

연말을 앞둔 출판사. 원고 교정이며, 외판일로 밤낮없이 바쁜 동원. 거리에서 문 전성시를 이루는 레스토랑을 지나칠 때면 자신이 고스트 레스토랑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느낀다. 보험금을 타 고스트 레스토랑을 살 수 있다면, 그들에게 했던 잘못을 조금은 되갚을 수 있단 생각에 즐겁기만 한 동원.

시간은 흘러 헤미에게 돈을 받기로 한 날. 연락이 되지 않는 헤미를 찾아 회사로 직접 찾아간 동원은 그녀가 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자취를 감췄단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가 아니라, 경찰서로 가셔야죠.”

허탈해 하며 회사를 빠져나오던 동원은, 역시 헤미에게 사기를 당한 화정을 만나게 된다. 화정은 동원이 마련하겠다던 돈의 정체를 알고 가슴 아파한다.

화정 :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팔 거예요.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동원군의 마음은 알겠지만, 추억을 정리하고자 하는 제 마음도 이해해주세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구시가지에도 캐럴송이 울려 퍼진다. 고스트 레스토랑을 찾은 동원. 허물어져가는 레스토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만, 유령들은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가게 안. 이런 동원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미래와 재경, 그리고 수호. 한참동안 문을 두드리고 선 동원에게 다가가는 미래를, 정구가 제지한다. 다른 유령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젓는 정구.

국제선 보딩 게이트 앞.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헤미에게 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동생의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의 말에, 갈등하던 헤미는 급하게 병원으로 발길을 돌린다.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헤미 앞에 나타나는 동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헤미. 사정을 설명하는 그녀에게 동원은 오히려 모자란 수술비를 보태겠다고 말한다. “당신이라도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지 말아요.” 동원은 헤미와 함께 수술실을 앞을 지킨다.

수술은 무사히 끝나고 헤미는 동생 곁에 남는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원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간다.

늦은 저녁. 동원의 옥탑방에 벨이 울린다. 문 밖, 두꺼운 망토로 온 몸을 가린 누군가가 서있다. 동원은 곧, 그녀가 미래라는 것을 알아본다. 레스토랑의 룰을 어기고 동원을 찾은 미래. 그녀는 동원이 레스토랑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을 모두들 알고 있다고 말한다.

동원 :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어요?

미래 : (웃음) 저흰 유령인걸요. 하지만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인 거 같네요.

동원 : 떠나다뇨…?

미래 : 레스토랑이 팔렸어요. 젊은 부부라는데, 작은 분식집을 차린대요. (잠시) 동원 씨는 가게에 다시 안 올 건가요?

동원 : 갔… 었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보여서….

그 말을 듣고, 두르고 있던 망토를 천천히 벗는 미래. 백골의 형상을 한 그녀의 모습이 드러난다. 흠칫 놀라는 동원. 미래, 벽에 걸린 시계를 들여다본다. 잠시 후, 시침이 정확히 12시를 가리키면 백골은 동원이 알던 미래의 모습으로 바뀐다.

미래 : 있다고 믿으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세상에서 사라진다. (웃음) 유령 세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모두 동원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구 아저씨도요.

막차가 구시가지 플랫폼을 떠난다. 옷을 추스르며 개찰구로 향하는 사람들 틈에 초조한 표정의 동원이 서있다. 저 멀리 보이는 어둠이 내린 구시가지의 실루엣.

문 닫은 상점가를 지나는 동원. 어느새 나타난 동네 고양이들, 동원을 따라 담벼락 위를 걷는다. 마지막 모퉁이를 돌기 전, 눈을 질끈 감는 동원.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레스토랑을 향해 내딛다 좌당, 엎어진다. 깨진 무릎을 문지르며 눈을 뜨는 동원 앞에, 언제나처럼 불을 환히 밝힌 고스트 레스토랑이 보인다.

가게 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여전히 한가한 모습으로 모두들 반갑게 동원을 맞이한다. 그의 주위를 빙빙 도는 해피와 수호, 기다렸다는 듯 질문 공세를 퍼붓는 재경, 수줍은 듯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는 미래.

정구 : 뭘 그렇게 넋 놓고 서있어? 어서 테이블 정리하는 거 도와야지! 손님 오시겠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동원과 레스토랑 유령들. 동원은 그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마치 모험담 늘어놓듯 모두에게 이야기해준다. 출판사에서 있었던 일이며, 사장 험담, 해미에게 사기 당한 일, 그녀의 동생이 아파 쓰러진 일 등. 옛날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처럼 동원 주위에 모여 이야기를 듣는 유령들. 하지만 동원은 화정을 만난 일만은 차마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레스토랑 밖을 서성이는 검은 정장차림의 한 남자를 본다. 그는 동원이 도로에 쓰러져있던 할머니들 구하던 날 보았던 남자, 바로 사신이였다.

유령들의 만류에도 동원은 가게 밖으로 나가 사신과 대면한다. 인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레스토랑 유령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사신.

동원 : 앞으로 3일이라구요? 그럼, 그때까지는 절대 기다려주세요! 고스트 레스토랑에 꼭 선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신 : 사신에게 부탁이라...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이거 꽤나 당황스러운데.

사신과 새끼손가락까지 거는 동원. 유리창에 붙어 이 상황을 지켜보는 유령들.

곧 있으면 지상을 떠나야 하는 유령들을 위해, 그들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레스토랑에 초대하려는 동원. 협력을 구하기 위해 해미를 찾는다.

해미 :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 줄 알죠? 소재파악, 미행, 그리고 설득. 맡겨둬

요. (잠시) 그리고 동생 일 고마웠어요.

크리스마스이브까지는 앞으로 이틀. 동원과 헤미는 유령들의 소중한 사람을 찾아 설득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오래전에 죽은 이들을 잇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은 동원과 헤미의 초대를 선불리 받아들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어린 동원의 모습에 사람들은 결국 속는 셈 치고 크리스마스이브 밤 12시, 고스트 레스토랑에 모이기로 한다.

크리스마스이브의 밤이 된다.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동원과 유령들. 밤 12시가 지나자 하나 둘 가게로 사람들이 찾아온다. 깜짝 놀라는 유령들. 수호의 엄마아빠, 이제는 아저씨가 되어버린 미래의 첫사랑, 중학교시절 언제나 1, 2등을 다투던 재정의 고향친구. 동원의 안내로 돈가스 스프가 세팅된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군데군데 빈 의자가 보이지만, 사실 그곳에는 몇 십 년 간 그들을 그리워하던 유령들이 앉아있다. 마지막으로 비어있는 두 의자. 정구와 아직 오지 않은 그의 아내 화정을 위한 자리.

화정은 동원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에도 말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 올봄에 재혼해요. 그이가 떠나고 난 뒤, 제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빈 옆자리를 의식하지 않으려는 정구. 안절부절 못하며 문 앞을 서성이던 동원. 그때, 반가운 이를 맞으려는 듯 밖을 향해 짚어대는 해피. 살며시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정구보다 더 나이 들어버린 화정이 들어온다.

깜박이는 꼬마전구. 턱을 뽐 채 테이블을 바라보는 해피. 테이블에 둘러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하는 사람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순 없지만, 곁에 앉아 자신들을 지켜보는 그리운 이들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들. 정구는 화정의 손에 조용히 자신의 손을 겹친다. 보이지는 않지만 정구의 존재를 느끼는 화정, 눈물을 흘린다.

레스토랑 창 밖에 선 사신을 보며 씨익 웃는 동원.

정구 : 자네가 레스토랑에 온 것은 자네 부모가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인 거 같군.

동원 : 아뇨. 선물은 제가 받았는걸요.

레스토랑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 잔잔한 이별의 노래가 흐르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한 쪽에 선 헤미, 셔터를 누른다. 찰칵. 크리스마스이브의 밤이 깊어간다.

겨울 햇살이 비쳐드는 텅 빈 레스토랑 안. 먼지 낀 테이블 위에 한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이 놓여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행복한 표정의 사람들. 사이사이 빈 의자

가 보인다. 양 손으로 브이를 그리며 서있는 동원.

**에필로그.** 연말이 지나 한가한 출판사. 푹푹푹. 사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급히 눈물을 훔치는 사장. 동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들고 있던 두툼한 원고를 책상에 내려놓는 사장.

사장 : 흠흠. 이걸 정말 자네가 썼나?

동원 : 네, 네. 겨우 완성하긴 했는데... (당황) 아직 초고고 고칠 데도 많고...

사장 : 좋아, 출판하지. 동원 씨 이거 들고 당장 인쇄소로 가. 아, 이제 박 작가로 불려야 되나. 하하하.

동원 : (함박웃음을 지으며) 저,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원이 원고를 집어 들면 원고 표지에 적힌 제목, ‘고스트 레스토랑’이다. 티슈를 뽑아 남은 눈물을 찍어내는 사장. 돌아나가려던 동원, 힐끔 고개를 돌린다. 사장 뒤의 텅 빈 공간을 가리키며,

동원 : 근데 사장님, 아까부터 뒤에 서 계신 저 분은 누구예요?

**끝**